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 문법 교육 방안

박수진*

|| 차례 ||

- I. 머리말
- II. 실제 자료의 검토
- III. 서사 담화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안 제언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서사 담화에서 조사 {가}, {는}과 시제가 선택되는 담화 맥락을 정보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명료화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나타나는 담화 맥락을 서사 담화 문법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 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점화’를 제시하였다. 조사 {가}, {는}과 시제가 선택되는 담화 맥락을 각각 ‘정보의 초점화’, ‘정보와 서술 관점의 ‘초점화’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서사 담화, 담화 문법, 담화 문법 교육, 담화 맥락, 정보, 초점화

I. 머리말

이 논문은 서사 담화를 활용하여 한국어 담화 문법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논의이다. 실제 서사 자료에서 조사와 시제가 나타나는

*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담화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화 문법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담화문법은 기존의 문장 중심 접근법을 지양하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가 어떻게 문장과 문법 요소를 선택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다.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단어나 문장들이 보다 더 큰 언어적 덩어리로 결합되어 유의미한 문장으로써 의미 전달에 기여하므로 문장의 경계를 넘어 언어 사용 및 사회적 행위의 단위인 담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고립된 문장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문장 접근법으로는 실제 사용되는 언어의 양상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 문장들을 보자.

- (1) 왕자는 유리구두를 찾았다 / 왕자가 유리구두를 찾았다.
- (2) 왕자는 유리구두를 찾는다 / 왕자는 유리구두를 찾았다.

(1)은 조사의 사용이, (2)는 시제의 사용이 다르게 나타난 문장이다.

여기서 4개의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모두 정확하지만 이들 문장이 쓰인 담화 맥락을 고려해야 어느 문장이 더 적절하고 부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 즉 화자는 담화 맥락에 따라 이들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화자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청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상호작용 매 순간 문장과 문법 요소들을 선택한다. 화자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표현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 수준의 문법이 교수되어야 한다.

언어 교육의 목표는 그 언어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상황과 맥락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화 수준의 문법 교육을 제공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실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서사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와 시제 표현의 선택이 담화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구명하고, 서사 담화를 활용한 한국어 담화 문법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실제 자료의 검토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어 능력 중급 수준의 학습자 32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15명의 서사 문어 담화이다.¹⁾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국적을 가졌으며, 대학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2년 미만으로 학습한 20대, 30대 초반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20대 초반에서 50대까지의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중급 수준 학습자의 자료를 살펴본 것은 조사 {가}, {는}과 시제가 초급에서부터 제시되는 문법 항목이며, 초급 수준부터 학습해옴으로써 이들 문법 항목의 중간언어발달단계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료는 전래동화를 쓴 것 중 일부와 전체 글을 제시하여 조사와 시제를 비워두고, 이를 채워 문장을 완성하게 한 것을 바탕으로 조사 {가}, {는}과 시제를 살펴보았다.

조사와 시제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 문법 항목을 한국어 능력 초급에서

1) 자료는 2011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수집한 것으로 러시아 5명, 미국 2명, 베트남 6명, 우즈베키스탄 1명, 중국 13명, 프랑스 1명, 이란 1명, 인도네시아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전 실험으로 숙달도 검사를 통해 중급 수준의 숙달도를 확인하였다.

부터 학습하지만 많은 학습자들이 고급 단계에서도 어려워하고, 오류 빈도가 높은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로 인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이들 문법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부터 논의해 왔고, 오류 분석, 습득 순서, 사용 양상, 교수·학습 방안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서사 담화 문법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옛날 옛적에 신데렐라라는 예쁜 아이가 있었다’와 ‘신데렐라 이야기는 어느 문화권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이야기이다’는 다른 유형의 담화 도입부이다. 여기에서 주로 쓰이는 조사와 시제는 각각 다르다. 옛날이야기와 같은 서사 담화는 도입부에서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옛날 …라는 …가 있었다’의 형태가 거의 공식처럼 나타나며, 사건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므로 과거시제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비서사 담화 중 설명 담화의 양식으로 주제어+(는)과 현재시제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담화 유형이 담화 맥락을 특징지으며, 문법 항목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유형의 담화 중 서사 담화를 자료로 하여 사용된 조사와 시제의 담화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은 태초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로 소통하였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인지 능력이며, 욕망인 동시에 이를 전승하고 계승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기제가 된다. 이야기는 의사소통의 기본 유형이면서 문화들이 온존해 있는 담론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 측면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이야기, 즉 서사를 활용하여 담화 문법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절 1과 2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예문들을 통해 조사 {가}, {는}과 시제가 선택되는 담화 맥락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조사가 쓰인 문맥

다음 예문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작문한 서사 자료로, 조사 {가}, {는}이 쓰인 상황과 맥락을 알아보도록 한다.

- (3)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며 산길을 가고 있었다.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나 두 남자는 쏘살같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한 명은 나무타기를 잘 하여 나무 위로 안전하게 피신을 하였으나 한명은 나무타기를 전혀 못하는지라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생각하여 낙담한 채 그냥 엎드려 있었다.(N)²⁾

‘두 남자가’, ‘큰 곰이’는 담화 맥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들로 조사 {가}가 쓰였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의 ‘두 남자는’은 처음 소개한 후 다시 언급한 경우로 조사 {는}이 쓰였다. 이는 정보의 성격이 신정보인지, 구정보인지에 따라 신정보는 {가}와 구정보는 {는}이 쓰인 것을 설명할 수 있다.³⁾ 그러나 세 번째 문장의 경우는 ‘한 명은’, ‘한명은’은 두 사람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대조표지 {는}이 쓰인 것이다.⁴⁾ 이처럼 화자

2)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료는 예문에서 ‘N’(native)으로 표시되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의 자료이다.

3) 담화화용론에서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청자와 관련하여 신정보와 구정보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현저성, 공유지식, 친숙성 등을 기준으로 신정보와 구정보를 구분하는데 신정보는 청자의 의식 속에 소개되는, 청자가 모르는 정보, 구정보는 발화시 청자의 의식속에 현저히 존재하는 것, 청자가 알고 있거나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화자가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정희자, 2009:92-101).

4) 박철우(2003:120-121)는 {는}이 화제를 나타내며, 대조의 의미는 화제의 영역이 문맥에 의해 제한되어서 대조되는 대상이 명확해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차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대조의 의미는 화제의 영역에 둘 이상의 지시체가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일부만을 화제로 삼음으로써 생겨나는 문맥적 의미이다. {는}을 사용한 표현이 대조의 의미로 해석될 때에도 여전히 화제를 나타내므로 {는}의 기본 의미는

의 조사 {가}, {는}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담화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선택되는 담화 맥락을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등장인물의 지시- 신정보 + {가}, 구정보 + {는}

위 예문 (3)에서처럼 ‘두 남자가’, ‘큰 꿈이’는 새 정보로 처음 소개되므로 조사 {가}가, 두 번째 문장의 주절 ‘두 남자는’은 일단 소개된 다음에 나타난 알려진 내용이므로 조사 {는}이 함께 쓰였다.

신정보와 {가}, 구정보와 {는}이 쓰인 경우는 다음 예문들에도 나타난다.

- (4) 어느 마을에서 아주 착한데 가난한 신데렐라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 (5) 옛날 옛적에 마음이 착하고 예쁘게 생긴 신데렐라가 살았다……
- (6) 옛날에 예쁘고 착한 신데렐라가 있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계모와 두 언니와 아빠와 살았다……(N)
- (7) 사이좋은 친구가 숲 길을 걷고 있다. 그때 무서운 꿈을 만났다. 꿈은 입안에 가시가 박혀서 몹시 아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N)

최규수(1999:127)는, 담화는 보통의 경우 ‘주제의 도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여 위에서 제시된 예문처럼 ‘신데렐라’가 도입되는 주제이며, 이를 중심으로 ‘신데렐라는’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는 정보전달력이 높은 것으로 정보 초점을 받는 신정보 요소이면서 앞

화제 표시라고 하겠다(최동주, 2012:29-32). 이 논문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 여기서 조사와 시제가 쓰인 맥락의 분류는 정보(신·구, 전정·배경)를 중심으로 하며, 한국어 문법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기 위해 실제 자료의 맥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한다.

의 중심 주제를 변경, 그 뒤에 이어질 담화의 새로운 중심 주제를 제공하는 주제이다(김영희, 1980). 즉 담화에서 새로운 정보를 도입할 때 화자가 청자에게 {가}가 피접하는 요소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초점을 맞추어 달라는) 표지이다. 위의 예문에서처럼 처음 등장인물이 소개될 때는, 즉 도입부에서 {가}가 나타나는 반면에 도입된 후에 다시 이어지는 경우에는 {는}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⁵⁾

그렇다면 신정보와 {가}, 구정보와 {는}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가?

2) 사건의 제시- 구정보+{가}

다음 예문들은 서사의 중간 부분에서 구정보와 {가}가 나타난 경우이다.

- (8) ……어느날 아빠가 초대를 받았다……
- (9) ……몇 년 전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
- (10) ……계모와 언니들이 왔다……(N)
- (11) ……어느날 아버지가 결혼했고 새로운 엄마가 생겼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던 새엄머니와 이복자매들이 모든 집안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 (12) ……시간이 12시쯤 가까이 왔을때 급히 나오려고 하다 신발을 한 짝을 잃어버렸는데 왕자가 신발 주인을 찾으려고 전국을 다 찾으려 다녔다……(N)

5) 서사 담화의 도입부에서 {가} 지시항으로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는 이야기라는 장르 특성상 이야기를 읽는 독자의 머릿속에 활성화되지 않은 신정보가 담화의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정보 전달 기능으로 보면 중심 주제가 되는 {는} 지시항은 정보 전달력이 약하다. 중심 주제가 되는 요소는 기지(既知)의 정보이며, 따라서 정보 전달력이 낮다는 사실은 담화 과정에서 그 요소의 생략 기능과도 관계가 있다(김령, 2012:27-37).

위 예문들은 모두 문맥에서 구정보인데 {가}가 나타난 경우이다. {가}가 나타난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8), (9), (10)의 경우에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여 어떤 사건이 발화된 경우로 이때에는 화자가 (8) ‘아빠가 초대를 받았다’, (9) ‘엄마가 돌아가셨다’, (10) ‘계모와 언니들이 왔다’라는 새로운 사건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다.

(11)의 경우 ‘아버지가 결혼했고 새엄마가 생겼다’, ‘새어머니와 이복자매들이 일을 하게 만들었다’, (12)도 ‘왕자가 신발 주인을 찾으러 다녔다’는 새로운 사건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화자가 인물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사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정보에 {가}가 결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신정보와 {는}은 어떤 담화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3) 발화의 흐름- 신정보+{는}

다음 예문들은 신정보와 {는}이 나타난 경우이다.

위 1)에서 살펴본 바와는 일반적으로 담화 도입부에서는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지시하기 위해 {가} 결합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다음 예문들은 도입부에서 {는}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13) 엄마를 일찍 잃은 신데렐라는 아버지랑 함께 생활했다……
- (14)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와 이복여형제들과 같이 살게된 신데렐라는 예전에 공주처럼 예쁘게 살던 것과는 다르게 식모처럼 생활하게 되었다……(N)
- (15) 신데렐라는 어릴적에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의붓언니와 함께 살면서 학대와 구박을 받으며 어린시절을 보냈다……(N)
- (16) 신데렐라는 어렸을 때 엄마가 병으로 하늘나라에 갔다. 아버지는 어린 신데렐라를 위해서 새엄마를 얻었다……

처음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는}이 나타나는 현상은 특히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료에서 많이 나타났다. 지시체인 ‘신데렐라’가 담화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고, 발화 배경과 환경에서 화자가 신정보로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화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정보라도 청자가 이미 이를 현저히 활성화하고, 공유 지식을 토대로 지시체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화자가 가정하는 경우에는 {는}이 나타날 수 있다.⁶⁾

Chafe(1994:227-228)는 확인가능한 지시체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독자는 이전 경험으로부터 끊김 없이 이어진,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사건으로 흐르는 경험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방 또는 독자가 모르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화제로 삼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최동주, 2012:34).

(17)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아침에 우리 가족은 보통 집 근처 공원에 가요.

위의 예문도 담화 도입부에서 {는}이 나타난 경우인데 (13)-(16)은 모두 도입부에서 등장인물에 조사 {는}이 결합한 경우이고, (17)은 인물이 아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앞의 설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우리 가족’은 담화상 처음 나타나는 정보이지만 첫 문장에서의 ‘나는, 저는’처럼 중요하게 드러내야 하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발화의 흐름상 제시되는, 즉 화자, 청자의 공유 지식이나 청자가 확인가능한 정보로 가정될 수 있으므로 {는}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⁷⁾

6) 정희자(2009:99)는 Prince(1992)의 ‘청자의 믿음’과 ‘담화의 모형’에 대한 두 층위 정보의 상관 관계에 따라 ‘청자-신/구정보’, ‘담화-신/구정보’로 분류하여 맥락을 분석하였다.

조사 {가}, {는}이 나타나는 상황을 예문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가}, {는}이 나타나는 맥락

일반적	선택적
신정보+(가)	구정보+(가) (‘인물’에 초점을 둔 사건제시문)
구정보+(는)	신정보+(는) (발화의 흐름)

서사 담화에서 신정보와 {가}, 구정보와 {는}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화자의 의도에 따라 구정보와 {가}, 신정보와 {는}이 선택될 수 있다. 구정보와 {가}는 화자가 인물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제시하는 맥락에서, 그리고 신정보와 {는}은 화자가 발화의 흐름을 유지하고, 청자에게 이미 활성화되고 확인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 선택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위의 조사 {가}, {는}과 같이 담화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법 항목인 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시제가 쓰인 문맥

다음 예문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료로, 여기서 시제가 쓰인 상황과 맥락을 알아보도록 하자.

-
- 7) 특별한 문맥이나 맥락이 없어도 발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 간의 공유된 정보이므로 한정성을 갖는데 한정성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한정성은 주제(화제)가 갖는 특성으로 주장된다. 주제는 화자의 입장에서 본 문맥으로부터 독립된 개념, 구정보는 청자의 입장에서 본 문맥에 의존된 개념으로 본다(홍사만(2002:151)). 여기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담화 문법 내용으로써 보다 명료한 설명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신·구정보, 전경·배경정보’를 중심으로만 논의를 진행하겠다.

- (18) 사이좋은 친구가 숲 길을 걷고 있다. 그때 무서운 꿈을 만났다. 꿈은 입안에 가시가 박혀서 몹시 아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N)
- (19) 친구 둘이 화기에애하게 밤 산책을 나섰다. 둘은 사범 연수생들이다. 꿈의 탈을 쓴 사람이 나타나 깜짝 놀랐다. 한 친구는 나무 위로 올라가고 한 친구는 땅바닥에 누워 숨을 멈췄다. 꿈의 탈을 쓴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 귀에 대고 얘기를 했다.(N)

위 예문에서 시제를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시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8)은 이야기의 도입부로, 주인공이 숲 길을 걷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 무서운 꿈을 만나게 되는 사건의 배경에 해당한다. 물론 ‘걷고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나타내도 되지만 화자가 과거시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청자를 ‘숲 길을 걷고 있는’ 이야기의 장면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즉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도입부에서 ‘걷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19)에서도 현재시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18)과 달리 도입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재시제의 사용은 특히 영화를 소개하는 글이나 감상문에서 많이 나타난다.

- (20) ‘붉은 피 속에 태어난 새로운 왕국. 조선의 주인은 누구인가’
1398년, 태조 이성계는 제 손에 피를 묻혀 개국을 일군 왕자 이방원(장혁)이 아닌 어린 막내 아들을 정도전의 비호 하에 세자로 책봉하고, 왕좌와 권력을 둘러싼 핏빛 싸움이 예고된다. 한편, 정도전의 사위이자 태조의 사위 진(강하늘)을 아들로 둔 장군 김민재(신하균)는 북의 여진족과 남의 왜구로부터 끊임없이 위태로운 조선의 국경선을 지켜낸 공로로 군 총사령관이 된다.⁸⁾
- (21) 나름 정의로운 형사로 손 꼽히고 있는 행동과 서도철 형사는 오팀장을

비롯하여 여럿 팀원들과 함께 광역수사대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 서도철 형사는 자신을 도와준 친절한 트럭기사인 배기사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은 자살. 그렇게 끝나는 줄로만 알았던 사건이었으나 배기사의 어린아들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 이것이 바로 <베테랑>의 초반부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유아인과 유해진의 연기 변신이 정말 놀라웠고, 유해진은 <미쓰GO>때의 연기를 다시 보는 것 같아 반가웠던 것 같아요. 조연들의 짝찬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 짜릿한 액션과 짝찬 구성도 훌륭했습니다. 과연 <베를린>의 류승완 감독 답답라구요⁹⁾.

(20) 예문은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는 글로 주절의 모든 문장이 현재시제로 서술되어 있다. (21)은 영화를 본 후 블로그에 작성한 글로 과거와 현재시제가 혼용되지만 주로 현재시제 위주로 나타나 있다¹⁰⁾.

이처럼 화자가 시제를 선택하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서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선택되는 담화 맥락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전개

다음 예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들이 나타나 있다.

(22) ……사랑하는 엄마가 죽게 됐다. 드디어 그 여자는 여자애의 계모가 되었다.

(23) ……신데렐라의 엄마는 병으로 얼마 살지 못했다. 새 왕비는 두 딸을 데리고 들어왔다.(N)

8)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12041>

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ltjdcjf13&logNo=220445507348>

10) 엄밀히 말하면 예문 (20)에서는 이야기체 현재시제가, (21)에서는 현재시제와 이야기체 현재시제가 모두 나타난다.

위 예문과 같이 순차적인 사건의 전개에는 과거형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아래 예문들처럼 순차적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데에 과거형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24) ……다정하게 웃으며 걷고 있을 때 곰이 나타났다.……곰이 누워 있는 친구 곁에 다가와 살펴본다. 친구는 숨을 쉬지 않는다. 곰은 뒤돌아서 숲속으로 돌아간다.…….(N)
- (25) ……반달곰을 뒤로 한 채 저만치 도망을 가다가 안되겠는지 칠수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몸을 숨기고 만수는 올라갈 나무가 없어서 바닥에 엎드려서 죽은 척을 하고 있었다. 이 둘을 향해 쫓아오던 반달곰이 죽은 척을 하는 만수의 귀에다가 속삭이듯 ‘무어라’말을 하고 있다. 나무 위에 숨은 칠수가 반달곰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는 반달곰이 저만치 간 것을 확인하고 나무에서 내려왔다.…….(N)
- (26) ……곰을 만나 한 친구는 다른 친구를 외면한 채 나무 위로 몸을 피한다. 혼자 남게 된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 죽은체한다. 곰이 다가와 죽은 채하는 남자를 살피다 그냥 가 버린다.…….(N)

위의 예문들에서는 사건의 흐름이 나타난 부분인데도 과거와 현재시제가 함께 나타난다. Dry(1981, 1983)는 전경절이 주로 단순과거 또는 이야기체 현재시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주로 사건의 진행이 나타나는 전경정보는 과거시제와 함께 이야기체 현재시제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¹¹⁾

이야기체 현재시제의 사용은 담화 내의 이야기를 현재로 기술함으로써 사건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

11) 정보를 기능에 따라 전경정보와 배경정보로 구분한다. 전경정보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요 사건이나 실체 등 이야기를 추진하는 의사소통 부담량이 높은 데 반해 배경정보는 배경, 평가, 해설 등 의사소통 부담량이 낮은 정보이다(정희자, 2002:30-33).

를 낸다. 이어진 담화 속에서 이야기체 현재로 이동할 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치 사건들이 현재시간에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할 수 있다. 특히 위의 예문처럼 사건의 전개에서 과거시제와 현재시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화자가 시제를 선택할 수 있다.¹²⁾ 즉 화자의 의도에 의해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주요 정보를 보통 정보들 사이에서 부각시키기 위해 현재시제가 나타나게 된다. 위의 예문들에서는 주로 꿈이 나타난 이후 꿈과 주인공의 행동을 나타낸 부분에서 현재시제가 나타났다. 화자는 꿈을 만난 주인공의 행동을 사건의 흐름 속에서 드러낼만한 중요한 정보로 여겨 청자가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체 현재시제를 선택한 것이다.

2) 이야기의 배경

그렇다면 주요한 사건의 흐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지 다음 예문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7) 어느 나라에 임금이 살고 있는데 신데렐라라는 딸이 있었다.……(N)
 (28) 아주아주 옛날에 신데렐라라는 한 여자에게 살고 있었다. 그 여자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랑 같이 행복했었다.……
 (29)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남매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N)
 (30) 옛날옛적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딸이 한명 있었다.……

12) 정희자(2002:33)는 이야기를 추진시키는 기능에서 전경이 배경정보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보의 중요도에서 모든 전경정보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배경정보들의 가치가 동일한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임지룡·윤희수 역(2009:343~344)에서는 과거상황들의 직시적 이동에 대해 이야기체 현재(narrative present), 역사적 현재(historic present), 과학적 현재(scientific present), 요약 현재(summary present)로 설명하였다(박수진, 2011:90-4). 이 논문에서는 서사 담화의 특성이 드러나는 '이야기체 현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31) 지인(知人) 사이인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며 산책을 하고 있다. 얼마의 시간동안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곰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불쑥 나타났다……(N)
- (32) 옛날 옛날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랑 같이 사는 착한 여자 신데렐라라고 합니다……
- (33) 전처의 딸인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구박을 받으며 힘든 집안 일만 한다……

위의 예문들은 이야기의 도입부로 이야기의 시간,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과 인물이 처해진 상황 등을 소개하는 내용들이다. 이는 배경정보로 이야기의 진전에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27)-(30)은 전래동화의 전형적인 도입부분의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옛날(옛적에) (…라는) …가 살았다(살고 있었다)’처럼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의 소개가 과거시제로 기술되었다. (31)의 첫 번째 문장도 이야기의 배경인데 뒷문장의 사건이 과거시제로 기술된 것과 달리 현재시제로 기술되었다. (32), (33)은 주인공과 주인공의 상황이 소개된 부분으로 여기서도 현재시제가 나타났다.

앞서 1)에서 살펴 본 사건의 전개 부분인 전경정보에서도 시제 혼용 양상이 나타났듯이 이야기의 배경정보에서도 과거시제와 현재시제가 화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즉 배경정보 또한 화자의 의도에 따라 주요 배경정보와 보통 배경정보로 구분될 수 있으며, 중요도에 따라 화자는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3) 화자의 해설

위에서 예문들과 함께 살펴본 1) 사건의 전개와 2) 이야기의 배경 부분은 이야기 내부의 요소에 해당한다면 다음에 살펴볼 예문들은 이야기 외부에서 화자의 사건과 인물, 그리고 이야기 전체에 대한 서술과 평가 등이

나타난다.

(34) ① 산길을 걷다가 꿈을 만난 두 친구는 도망을 가게 되었다. ② 미처 나무위로 피하지 못한 한 친구는 길에서 죽은 척을 했다. ③ 얼마나 긴장되었을까? ④ 죽은척 하는 지해도 용기이다. ⑤ 남을 탓하기보다 삶을 대처하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 ⑥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이듯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생각한다.(N)

①, ②는 사건의 전개에 해당하는 전경정보이며, 과거시제로 기술된 것에 반해 ③, ④, ⑤, ⑥은 모두 이야기 밖에서 화자가 서술한 부분으로 ③은 등장인물의 심리, ④, ⑤, ⑥은 화자의 평가에 해당한다. ③의 독백적 표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시제로 기술되었다. 이는 화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와 자신의 의견과 평가를 나타낸 부분으로 이야기 외부의 발화상황에서 현재시제가 선택된 것이다. 다음 예문들도 화자가 발화하는 부분이다.

(35) 꿈은 죽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났던 것이다.(N)
(36) 친구를 배신하지 맙시다.(N)
(37) 그런데 무조건 아니라 한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35)는 화자의 이야기 내부에서 주인공의 생각을 보고하는 부분으로 현재시제가 쓰였다. 그리고 (36)과 (37)은 이야기 외부의 화자의 의견에 해당하며, 위의 예문 (34)에서 ④, ⑤, ⑥과 같이 현재시제가 나타났다.

시제가 선택되는 담화 맥락을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들의 서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시제가 나타나는 맥락

현실 세계에서 담화 세계를 서술	담화 세계로 진입하여 서술
과거시제 현재시제	이야기체 현재시제
전경정보 배경정보	주요 전경정보 주요 배경정보

화자는 이야기 외부인 현실 세계에서 이야기 세계를 서술하기도 하고, 이야기 내부인 담화 세계로 진입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이야기 외부에서 사건의 전개와 같은 전경정보를 전달할 때는 주로 과거시제를 선택한다. 이에 반해 사건의 배경과 인물의 모습, 심리와 같은 배경정보를 전달할 때는 과거시제와 함께 현재시제도 선택할 수 있는데 발화 당시 담화 상황이 과거 사태인지, 현재 사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이야기 내부로 들어가 사건과 배경, 인물들의 행위 등을 더욱 현실감 있고 생생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주로 이야기체 현재시제를 선택하며, 과거시제가 쓰인 부분에 비해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되는 효과도 있다.

화자는 과거시제와 현재시제, 이야기체 현재시제를 선택하여 이야기의 안과 밖에서 사건 줄거리, 이야기의 배경과 인물들의 심리와 행위, 그리고 화자 자신의 의견과 평가를 전달한다.

이 장에서는 조사 {가}, {는}과 시제가 선택되는 서사 담화의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서사 담화에서 신정보와 {가}, 구정보와 {는}이 나타나는데 화자의 의도에 따라 구정보와 {가}, 신정보와 {는}이 선택되는 맥락을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정보와 {가}는 화자가 인물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제시하는 맥락에서, 그리고 신정보와 {는}은 화자가, 청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발화의 흐름이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에서 선

택될 수 있다. 한편 시제가 서사 담화에서 선택되는 맥락을 <표 2>에 제시하였는데 현실 세계와 담화 세계 내부에서 사건과 배경, 등장인물 등에 관하여 화자의 의도에 따라 시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특히 이야기체 현재시제는 청자를 이야기 내부로 이끌어 중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에서 선택된다.

다음 장에서는 위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담화 문법 교육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서사 담화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안 제언

이 장에서는 서사 담화에서 나타난 조사 {가}, {는}과 시제의 선택맥락이 담화 문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한국어 문법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교육 내용으로서 ‘초점화’

<표 1>과 <표 2>에서 조사 {가}, {는}, 그리고 시제가 나타나는 서사 담화의 맥락을 살펴보았다.

조사와 시제의 일반적인 사용 맥락과는 다르게 화자의 의도에 따른 조사와 시제의 선택적인 사용 맥락은 다음과 같다. 화자는 {가}, {는}을 사용하여 인물에 초점을 두거나 자연스러운 발화의 흐름을 유지하기도 하며, 시제를 사용하여 이야기 외부에서 정보를 구분하여 전달하거나 또는 이야기 내부로 들어가서 더욱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 {가}, {는}과 시제의 선택 맥락은 ‘초점화’(focalization)로

설명될 수 있다.¹³⁾

우선 조사의 경우, 아래 <표 3>과 같이 구정보와 {가}의 결합에 대해 정보의 초점화로, 신정보와 {는}의 결합에 대해 정보의 비초점화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는}은 화용적 기능으로 중심 주제와 구정보를, {가}는 도입 주제와 신정보를 들 수 있다. 최규수(2004)는 이들 조사가 본질적인 기능의 차이보다 문체적인 차이를 가지며, 중심주제어로 쓰인 것보다 도입주제어로 쓰인 것이 더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주므로 담화 내용의 흐름에서 보면 중심주제어는 바탕(background)으로 깔리고, 도입주제어는 모습(figure)으로 드러나는 지시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예문 (8)-(10)과 같이 ‘아빠가 초대를 받았다’, ‘엄마가 돌아갔다’, ‘계모와 언니들이 왔다’는 이미 소개된 구정보인데도 화자가 인물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제시하고자 할 때 {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담화상에서는 처음 언급되더라도 많이 알려진 정보로 판단되거나 이 정보를 부각하고 싶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전개하고자 할 때 {는}이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한다.

13) 정보의 중요도에서 모든 전경정보와 모든 배경정보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 보통 전경정보를 바탕(ground)으로 하고 주요 전경정보를 초점화하여 모습(figure)으로 두 드러지게 표현함으로써 청자의 주의를 끌어들이는(정희자, 2009;197). 박수진(2011)은 기존 논의들을 통해 시제 전환 현상에 대해 ‘초점화’로 설명하고, 시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도 ‘초점화’의 설명 체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조사의 선택 맥락으로 확장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표 3〉 조사 {가}, {는}과 정보의 초점화

일반 맥락	선택 맥락	
신정보+(가)	구정보+(가) (‘인물’에 초점을 둔 사건제시문)	초점화
구정보+(는)	신정보+(는) (발화의 흐름)	비초점화

아래 표는 사건의 흐름을 나타내는 전경정보와 이야기의 배경, 화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 등의 배경정보 중 화자의 의도에 따라 부각하고자 하는 정보가 결정되어 시제가 선택되는 담화 맥락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시제와 정보의 초점화

시제	선택 맥락	
이야기체 현재시제	주요 전경정보 주요 배경정보	초점화
과거시제 현재시제	보통 전경정보 보통 배경정보	비초점화

일반적으로 서사 담화에서 사건의 순차적 전개를 나타내는 전경정보는 과거시제 위주로 나타나며, 이야기의 배경과 인물의 심리 상태, 행위 묘사, 화자의 해설 등이 나타나는 배경정보는 과거시제와 함께 현재시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맥락이다. 그러나 화자는 시제의 선택을 통해 정보의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다. 화자는 주요 정보를 이야기체 현재시제를 통해 초점화할 수 있으며,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주로 과거시제를 통해 비초점화할 수 있다.

〈표 5〉 시제와 서술 관점의 초점화

선택 맥락	
이야기 외부에서 발화	이야기 내부에서 발화
과거시제, 현재시제	이야기체 현재시제
전경정보, 배경정보	주요 전경, 배경정보

위 표는 화자의 서술 관점을 중심으로 시제가 선택되는 상황 맥락을 나타낸 것이다. 화자는 시제를 사용하여 서술 관점을 초점화할 수 있다. 화자가 실제로 있는 현실 세계에서 담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경우와 담화 세계 내부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는 경우, 시제를 다르게 사용하여 담화 외적, 내적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특히 화자가 담화 내부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이야기체 현재시제를 선택하여 주요 사건과 배경정보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현실세계처럼 초점화할 수 있다.¹⁴⁾

〈표 6〉 시제와 정보, 서술 관점의 초점화

관점	정보	의도	시제 선택
이야기 내부	주요 전경정보 주요 배경정보	초점화	이야기체 현재시제
이야기 외부	보통 전경정보 보통 배경정보	비초점화	과거시제 현재시제

<표 6>은 <표 5-6>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화자는 담화 맥락에 따라 시제를 선택하여 이야기 내적, 외적 상황의 서술 관점과 정보의 중요

14) 조사의 선택도 화자의 서술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술 관점이 이야기 내부에 있는지, 이야기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결합되는 조사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실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좀더 자세히 고찰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 통계 자료와 함께 이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도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2. 교수·학습 활동

위 절에서는 서사 담화에서 조사 {가}, {는}과 시제의 선택 맥락에 대한 설명 체계로서 정보의 초점화와 서술 관점의 초점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실제 수업에서 ‘초점화’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학습 활동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38)은 서사 담화를 활용한 조사 {가}, {는}의 담화 문법 학습 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38) 조사 {가}, {는}의 서사 담화 문법 학습 활동

- ① 동일 주제로 작문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실제 서사 자료를 제시하여 차이점을 찾게 한다.
- ② 조사 {가}, {는}이 사용된 담화 맥락을 살펴보게 한 후,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 질문한다.
- ③ 처음 소개되는 정보인지 이미 소개된 정보인지 구분하게 하고, 신정보와 {가}, 구정보와 {는}이 잘 결합되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
- ④ 이와는 다른 사용 양상을 찾게 하고, 화자의 의도, 즉 정보의 초점화에 의해 {가}, {는}이 다른 정보에도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 ⑤ 문학 작품이나 한국어 교재의 서사가 실린 부분을 과제로 제시하여 읽게 하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조사를 바꾸는 활동을 하게 한다. 이를 통해 조사 {가}, {는}의 어휘, 통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담화적 기능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실제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학습자들의 자료는 학습자들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점검하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내적동기를 더욱 강화하게 한다. 기존의 한국어 문법 수업은 조사를 학습할 때 담화 맥락이 제시되지 않고, 어휘적 의미나 통사적 기능, 제약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 위의 예는 학습자들이 전체 글이 제시된 자료에서 조사가 사용된 상황과 맥락을 직접 찾아보고 이해함으로써 조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담화적 기능까지 학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문법 항목의 담화 문법 학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아래 예는 시제를 중심으로 한 담화 문법적 학습 활동의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39) 시제의 서사 담화 문법 학습 활동

- ① 동일 주제로 작문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실제 서사 자료를 제시하여 차이점을 찾게 한다.
- ② 현재시제와 과거시제 등이 사용된 담화 맥락을 살펴보게 한 후,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 질문한다.
- ③ 순차적인 사건 전개에 대한 정보인지 이야기의 배경, 인물의 심리, 화자의 해설 등에 대한 정보인지 구분하게 하고 여기에 결합된 시제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 ④ 이와는 다른 사용 양상을 찾게 하고, 화자의 의도, 즉 정보의 초점화에 의해 정보의 중요도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시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 ⑤ 화자가 이야기 내부에 있는지, 이야기 외부에 있는지를 찾고, 화자의 관점에 따라 이야기체 현재시제가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 ⑥ 문학 작품이나 한국어 교재의 서사가 실린 부분을 과제로 제시하여 읽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시제를 바꾸는 활동을 하게 한다. 이를 통해 시제의 의미, 통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담화적 기능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서사 담화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는 과거시제와 현재시제의 어휘 및 통사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자신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시제를 선택하고, 특히 중요한 내용을 드러내거나 이야기 내부에서 현실감 있게 전달하고자 이야기체 현재시제를 선택하는 것을 실제 서사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실제 서사 담화를 통해 시제의 담화적 기능까지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있는 것이다.

III장에서는 한국어 담화 문법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II장에서 제시한 서사 담화에서의 조사와 시제의 선택 맥락을 ‘초점화’로 설명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담화 문법적 학습 활동을 구안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서사 담화를 활용한 담화 문법의 교육적 접근을 좀 더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 연구는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자료에서 조사와 시제가 선택되는 담화 맥락을 명료화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조사와 시제의 담화 문법적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 담화에서 등장인물을 지시할 때 신정보와 {가}, 구정보와 {는}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 구정보와 {가}는 화자가 인물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제시하는 맥락에서, 그리고 신정보와 {는}은 화자가 발화의 흐름을 이어지게 하고, 청자에게 이미 활성화되고 확인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 선택될 수 있다.

둘째, 서사 담화에서 시제의 선택은 사건의 전개, 이야기의 배경, 화자의

해설과 평가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건의 전개와 이야기의 배경, 화자의 해설과 평가 등, 정보의 중요도와 화자의 서술 관점에 따라 전달 효과를 위해 화자가 시제를 선택할 수 있다. 즉, 화자는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를 활용하여 이야기 외부에서 사건 줄거리, 이야기의 배경과 인물들의 심리와 행위,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화자의 의견과 평가를 전달한다. 그리고 화자는 이야기 내부로 들어가 사건과 배경, 인물들의 행위 등을 더욱 현실감 있고, 중요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이야기체 현재시제를 선택한다.

셋째, 서사 담화에서 나타난 {가}, {는}과 시제의 선택에 대하여 담화 문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한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설명 체계와 학습활동 예를 제시하였다. {가}, {는}의 선택은 정보의 초점화로, 시제의 선택은 정보와 서술 관점의 초점화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달리 조사와 시제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담화 차원의 문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서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와 시제가 선택되는 담화 맥락을 밝히고, 담화 문법 교육 내용과 방안의 기초적 이론으로 ‘초점화’라는 논리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는 한국어 담화 문법 교육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저 이론을 탐색하기 위한 일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를 검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향후 ‘초점화’에 대해 좀더 세밀히 살피어 이를 검증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김 령,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현지, 『중간언어를 기반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선택에 대한 단서 연구- 문법 관계 교체 구문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3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pp.1-23.
- 김호정,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변이 양상 연구』, 『우리말글』 58, 우리말글학회, 2013, pp.1-34.
- 박수진, 『한국어 학습자의 서사 담화 유형에 따른 전경·배경의 구분 기준과 그 양상 연구』, 『이중언어학』 44, 이중언어학회, 2010, pp.193-216.
- _____, 『한국어 학습자의 서사 담화 연구 - 담화 구조와 시제 사용을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_____, 『한국어 학습자 서사의 담화적 특성』, 『한국언어문화학』 12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pp.125-153.
- 박철우,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2003.
- 임지룡·윤희수 역, 『인지문법론』, 박이정, 2009.
- 정희자,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2002, pp.31-36.
- _____, 『담화와 문법 그리고 의미』, 한국문화사, 2009, pp.92-94.
- 주신자, 『영어와 한국어의 담화문법 대조 분석』, 『한국어교육』 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8, pp.183-200.
- 최규수, 『주제어와 대조 초점 - 어순 및 강세와 관련하여 -』, 『우리말 연구』 15, 우리말학회, 2004, pp.149-172.
- 최동주, 『‘은/는’과 ‘이/가’의 출현 양상』, 『인문연구』 65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pp.25-55.
- _____, 『담화에서의 언어 표현의 선택- 『여수엑스포 길라잡이』의 담화 분석』, 『인문연구』 7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pp.1-30.
- 한선희, 『서사문 쓰기 발달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홍사만, 『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역락.
- 홍윤기·김중섭,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선택 연구』, 『한국어 교육』 2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pp.393-424.

- Hopper, P.J. & Thompson, S.A,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1980, pp.251-199.
- Hopper, P.J., Aspect and foregrounding in discourse. In T. Givón(Ed.), *Syntax and semantics: Discourse and syntax*. Newyork: Academic Press, 1979, pp.213-241.
- Hughes, R. & McCarthy M., From sentence to discourse: Discourse grammar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TESOL Quarterly*, 32(2), 1998, pp.263-287.
- Longacker, R.E., *The Grammar of Discourse*, New York: Plenum Press, 1983.
- Noyau, C., The development of means for temporality in French by adult Spanish-speakers: Linguistic devices and communicative capacities. In G. Extra and M.Mittner (Ed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by adult immigrants: Proceedings of the ESF / AILA symposium held on the 9th of August 1984 in Brussels*, 1984, pp.113-137.
- _____, The development of means for temporality in the unguided acquisition of L2: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In H. W. Dechert (Ed.), *Current trends in Europea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1990, pp.143-170.
- Rumelhart, D.E., Understanding and summarizing brief stories, In D. Laberge & J. Samuels (Eds.), *Basic processes in reading: Perception and comprehens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77.
- Schiffrin, D., *Approaches to discourse*. Cambridge, MA: Blackwell, 1994.

<참조 웹사이트>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1204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ltjdcjf13&logNo=220445>

Abstract

A Study on the Discourse Grammar Education Method
of Korean Learners

Park, Su-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how Korean language natives and Korean language learners select particles {가}, {는} and tenses in narrative discourses and to present contents and methods of discourse grammar educa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Korean courses of two universities 2011-2015 and was analyzed how they select {가}, {는} and tenses based on informations. I suggested a systems of explanation called "focalization" to construct contents of discourse grammar education and gave samples of learning activities.(Yeungnam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ey Word : Narrative Discourse, Discourse Grammar, Discourse Grammar
Education, Discourse Context, Information, Focalization

박수진

소속 :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전자우편 : bobae@ynu.ac.kr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